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주간 - 광주 경영계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광주은행

◆ 수익모델 창출...연임 청신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다. 고 행장은 임기 중 광주시 1금고 확보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대출 출시 등 장기적인 수익성 창출 모델을 구축했다. 임기 첫 해 부진했던 실적도 올해 반등하면서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자회사추천위원회를 꾸려 행장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내달 중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고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고 행장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통상 '2+1'로 불리는 행장 임기 가운데 추가 1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JB금융그룹 내 은행 자회사들이 올해 들어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고 행장의 경우 시금고 수성까지 성공해 연임에 긍정적 평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립준비 청년에 의료용품 키트 160상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키트 160 상자를 굿네이버스, 광주아동복지협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적 보호시설에서 독립해 홀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구급용품 및 영양제로 구성된 의료용품 키트는 광주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 16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달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다.

광주신세계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9주년을 기념해 누적 헌혈 인원이 500인 이상 단체, 70회 이상 헌혈한 개인 중 추천을 통해 표창 대상을 선정했다. 동구헌혈의 집 충장로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동수 광주전남혈

액원 원장과 김성춘 광주신세계 직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지역민이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겨울준비', 광주신세계, 침구류 최대 70% 할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겨울을 앞두고 구스 소재 등 보온성이 뛰어난 겨울 이불을 찾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8층 '운현궁' 매장에서 거위털 소재의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하는 구스 소재 이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운현궁은 광주 업체로 타 브랜드에 비해 할인폭이 커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은 '알레르망'도 본관 8층에서 고객들에게 감사 의미를 담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오는 11월10일까지 진행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더위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겨울 이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가볍고 보온 효과가 뛰어난 구스 소재 이불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광주신세계 8층 매장으로 고객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이노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7·8라운드 포디움 달성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금호타이어 '이노뷔(EnnoV)'를 장착한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의 이창욱 선수가 지난 19일~20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7·8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카'가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EnnoV)가 장착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한 이노뷔(EnnoV)를 통해 기존 EV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0월 3주차 랭키파이 테마별 주식 타이어 부문 트렌드 지수 순위



10월 3주차 테마별 주식 타이어 부문 트렌드 지수에서 금호타이어는 트렌드 지수 3,742 포인트로 1위에 올랐다.

테마별 주식 타이어 부문 트렌드 지수는 전주 키워드 검색량과 구글트렌드 점수를 랭키파이가 자체적으로 합산해 산출한 지표이다.

해당 순위는 직전 주 (2024년 10월 14일~19일) 구글 트렌드 지수,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것이며, 10월 1주차 지표의 경우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금호타이어는 남성 84%, 여성 16%, 2위 넥센타이어는 남성 82%, 여성 18%, 3위 금호석유는 남성 64%, 여성 36%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금호타이어는 10대 1%, 20대 12%, 30대 23%, 40대 30%, 50대 35%로 나타났다.

보해양조

◆ 광주식품대전서 로코노미 제품 선보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식품대전에 참가해 로코노미 대표 제품인 '다시, 마주'를 선보인다.

'다시 마주'는 완도 특산물인 다시마를 이용한 로코노미(Local(지역)과 Economy(경제) 합성어)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시, 마주'는 보해양조와 완도금일수협의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세계

최초 다시마 소주다. 다시마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소주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다시, 마주'와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 한국판 CES 출격, 비장의 무기는?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일상 속 다채로운 인공지능(AI) 라이프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집부터 비즈니스 영역까지 생활 전반에서 AI로 새로워진 일상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AI 빌리지'를 조성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의 'AI 오피스'와 'AI 스토어'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양한 AI 제품과 서비스, AI B2B 솔루션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개인화된,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AI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병원

◆ 제1회 임상교육훈련센터 학술대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의생명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임상교육훈련센터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발전과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논의하고, 의료교육

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신 의료시뮬레이터 소개 및 시연은 김현주 간호교육팀장이 좌장을 맡아 '호흡기 중환자 시뮬레이션 최신지견(래어달메디컬코리아)', 'AI 기반 VR 프로그램을 포함한 몰입형 교육 솔루션 소개(VEP4U)', 'SimTech with Simulator(메드닉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 신 병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보건의료 인력 및 예비 인력들에게 최첨단 의료기술 교육훈련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호남권 의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전KDN

◆ '2024 KDN 상생마켓' 행사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에서 '2024 KDN 상생마켓'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KDN 상생마켓은 식자재·간식 등 지역특산품과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KDN 상생장터'와

제로웨이스트 관련 제품 제작 체험과 판매, 한전KDN이 추진하는 KDN Eco-Life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Eco-Life 프리마켓’의 2가지 코너로 진행되었다.

김장현 사장은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과 함께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10년을 맞는 페스티벌과 연계된 상생마켓을 통해 그간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에너지ICT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된 전력을 보급하는 에너지 전문공기업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ESG경영에 더욱 매진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도 놓치지 않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KPS

◆ 한전KPS-목포대, 기술인재 양성·신성장사업 협력 MOU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와 ‘기술인재 양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상호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연 한전KPS 사장과 송하철 국

립목포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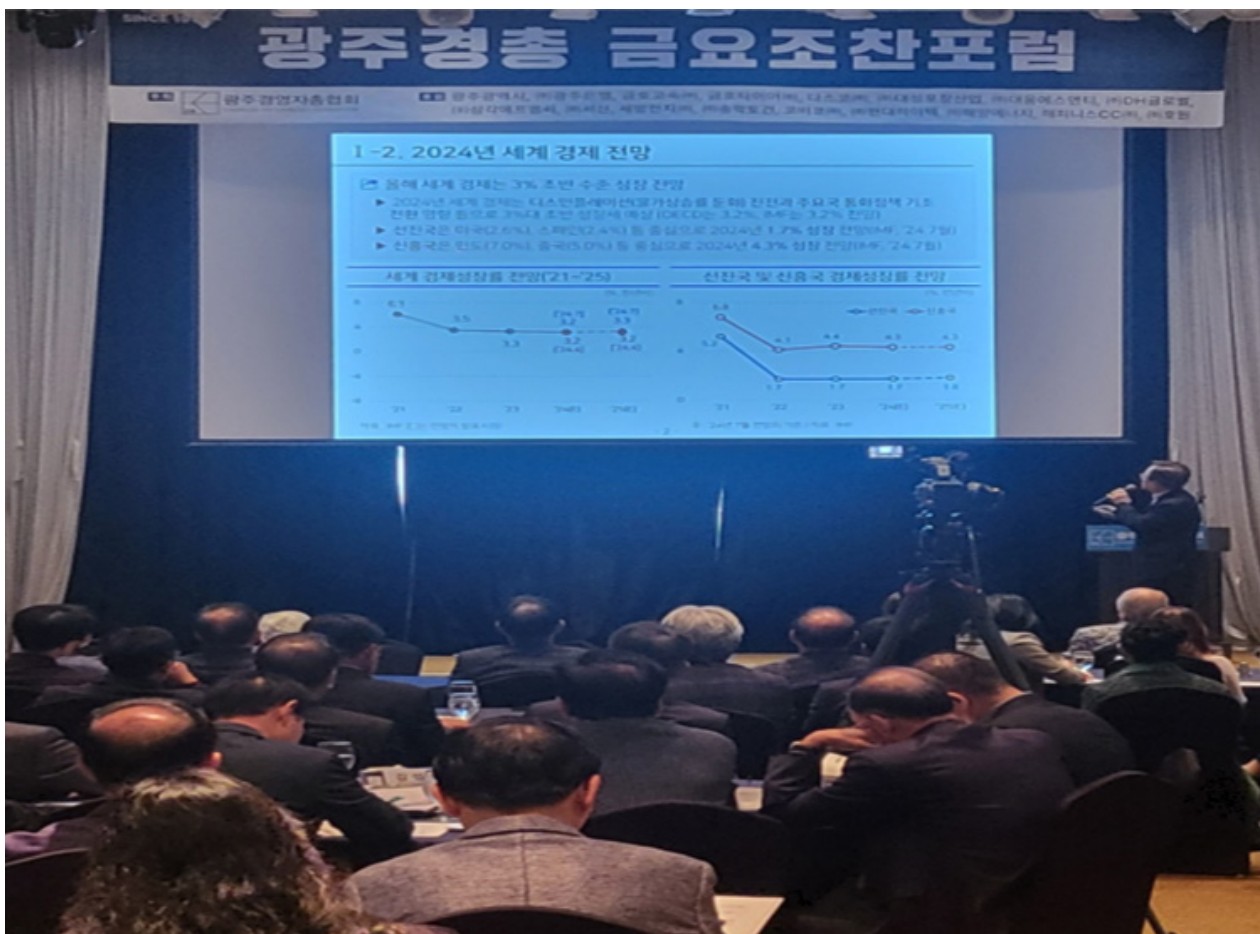
협약서에는 체코 원전 등 해외원전수출을 위한 개발협력 및 글로벌 핵심인재 공동 양성 신안·영광 등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추진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홍연 사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분야 R&D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했다”며 “특히 SMR,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 추진은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한전KPS 사업추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665회 금요조찬 포럼>

최근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

(이동근 부회장)



1665회 금요조찬포럼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를 주제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 한국 경제산업의 과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주요이슈,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전세계 경제는 서비스업 경기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하방 우려는 여전합니다. 글로벌 상품 교역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 제조업 부진, 보호무역 확산, 무역 갈등 같은 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영향 등으로 3%대 초반 성장세를 예상하고 미국(2.6%), 스페인(2.4%) 인도(7.0%), 중국(5.0%) 등 중심으로 성장을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 과제로는 저성장 고착화, 신산업 육성 저조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기업경영 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 위기,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규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로 나타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 및 경제 블록화 확산과 첨단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전환, 미국중국 무역 분쟁 확산이 우려되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① 핵심기술 개발, R&D 투자확대, 핵심분야 우수인력 확보 ② 신사업 진출 및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 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 지속 ③ 제품 수출시장 다변화& 원자재중간재 수입선 다변화 ④ 산업, 고용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사관리 유연화 ⑤ 투명경영, 친환경 경영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소비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올해 성장률을 2.5%내외로 전망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으로 낮아질 확률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경제동향

◆ 경제8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10.15)

- 경총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를 10월 15일 개최함.

*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주요 발표 내용 〉

-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 일본의 경우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의 법률관계를 맺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법 위임 체계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신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등 다른 대안을 제안
-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법체계와 완전히 다른 영미법계의 법리를 우리 회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며, 미국 판례에서 인정하는 신인 의무의 법리를 우리 상법에 추상적 문구로 그대로 이식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함.
-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위해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문구를 추가하거나 “이사가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힘.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10.1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3.50%) 이후 2024년 8월까지 20개월 연속 3.50% 유지했으나,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

*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통계청):2.9(4.4)→2.7(5)→2.4(6)→2.6(7)→2.0(8)→1.6(9)

◆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2024.10월)」 발표 (10.11)

○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개선됨에 따라 수출-내수 격차가 줄어들고 체감경기도 점차 나아질 전망. 다만, 대외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

- 2024년 하반기중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회복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부진 지속, SOC 집행 축소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에는 물가안정과 대내외 통화긴축 완화 등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이에 따라 내수-수출 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글로벌 IT 경기 향방, 중동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공급측 하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24.8월 2.5%)을 소폭 하회하겠으며, 근원물가는 당초 예상(2.2%)대로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정부는 금년 4/4분기중 전기요금을 잠정 동결하기로 결정(9.23)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2.7(4.5)→ 2.4(6)→ 2.6(7)→ 2.0(8)→ 1.6(9)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2.0('4.5)→ 2.0(6)→ 2.1(7)→ 1.9(8)→ 1.8(9)

○ 올해 경상수지는 건조한 수출 흐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당초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문의 부진 등으로 당초 예상에 소폭 못 미칠 전망.

◆ 한국은행,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0.15)

○ 2024년 9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3% 하락(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 : 0.6(4.5)→ 0.8(6)→ 0.8(7)→ 2.8(8)→ 2.3(9)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수출물가는 올해 1월(3.3%)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대비): 7.6('4.5)→ 12.1(6)→ 13.0(7)→ 5.5(8)→ 1.2(9)

* 원/달러 평균환율(원): 1,354.15('4.8월) → 1,334.82('24.9월)[전월대비 1.4%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3% 하락(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2024년 9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하락(전년동월대비 3.3% 하락)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 1.3(4.5)→ 0.6(6)→ 0.4(7)→ 3.5(8)→ 2.2(9)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77.60(4.8월) → 73.52(24.9월)[전월대비 5.3%하락]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4% 하락(전년동월대비 12.0% 하락)

- (중간재)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1% 하락(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8% 하락했고, 소비재도 전월대비 0.7% 하락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소비재 2.9% 상승)

◆ 통계청, 「2024년 9월 고용동향」 발표 (10.16)

- 2024년 9월 취업자는 2,88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4천(0.5%)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이후 43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정보통신업(10만 5천명), 운수 및 창고업(7만 9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3천명) 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10만명), 제조업(4만 9천명), 도매 및 소매업(10만 4천명) 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27만 2천명), 30대(7만 7천명), 50대(2만 5천명)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40대(6만 2천명), 20대(15만명) 취업자는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OECD기준(15~64세)고용률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3%p상승
- 실업자는 6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5.9%) 감소
-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7.9%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4.7%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4천명(0.3%) 증가했고, 이 중 취업준비자는 6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9.2%)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한 247만 9천명을 기록했고,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감소한 36만 1천명 기록

2. 노동동향

◆ 경총,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발표 (10.13)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총액의 전년동기대비 인상률은 2.2%로, 작년 상반기 인상률(2.9%)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 인상률 둔화는 대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

❶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 및 인상률) 2024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404.6만원으로, 작년 상반기(1~6월 누계) 대비 2.2% 인상.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인상률('23.上2.9%↑)과 비교해 0.7%p 낮은 수준으로, 국내외 경기둔화와 기업의 수익성 약화에 따른 특별급여 감소에 주로 기인

- (임금 구성항목별) 기본급 등 정액급여는 월평균 353.7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인상된 데 반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월평균 50.9만원으로 동 기간 5.7% 감소

❷ (규모별 임금 인상률) 2024년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3.1%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은 0.2% 감소

- 이로 인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3년 상반기 60.1%에서 2024년 상반기 62.1%로 증가하며,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❸ (업종별 임금수준)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올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751.1만원)

- 이에 반해 숙박·음식점업은 금융·보험업 임금총액의 34.0% 수준인 255.7만원으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음.

❹ (업종별 임금 인상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작년 상반기 대비 -.2%)*하였으며, 광업 부문의 인상률이 6.2%로 가장 높았음.

* 이는 올 상반기 제조업의 정액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3.7%로 업종 평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데 반해, 특별급여는 동 기간 17.2%로 전 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업종별·임금 구성항목별) 작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업종별로 최소 1.9%(수도·하수·폐기업) ~ 최대 5.0%(광업), 특별급여 인상률은 최소 - 7.2%(제조업) ~ 최대 16.9%(광업)로 조사됨.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건의 (10.15)

- 경총은 작지만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186건을 10월 15일 정부에 건의함.
- 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 제시

◆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이슈가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관련 질의답변 진행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10. 10),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10. 15) 국정감사 진행
- 환노위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 10)에서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
- 환노위 의원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하청 근로자 포함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결과 검토도, 안전보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
- 또한,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10. 15)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사노위 무용론 및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
-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의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

-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노동계는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노동현안 이슈화 시도 지속

※ 환노위 국정감사 일정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10. 22),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10. 25)

-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쿠팡에 대한 장시간 근로 및 근로자 사망의 규명을 주장하며 「국토위 및 환노위 합동 청문회」 개최를 요구 중인 가운데 10. 16부터 국회 앞 노숙 농성, 청문회 개최 국민청원 조직화 시도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0. 16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현대제철 자회사 고용 방식에 반발하며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

◆ 경총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10. 16)

○ 경총은 금번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토론]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법치주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불법투쟁 등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 이에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중요하고, 노동법 제도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금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과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쟁점 및 개선 방안’ 관련 발제 및 토론 진행

-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간 분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

○ 금속노조는 10. 15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전략조직화사업 방향 논의

- 금속노조는 3대 전략조직사업 대상으로 ① 산업단지 및 외국인근로자, ② 전기·전자 사업장, ③ 조선산업으로 설정
- 금속노조는 전략조직사업 지원을 위해 현행 조직담당자에 추가로 10여명의 조직전담 활동가를 배치할 예정
- 또한, 금속노조는 「미조직활동가대회」(11. 21), 「외국인근로자 조직화를 위한 1박2일 캠페인」(11월초)를 개최하고, 조선소 및 하청업체 조직화 확산을 위한 활동가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할 계획

MEMO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 •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